

락우락관

-우리 서로 사랑해요

- In Mae Lab



홈스테이 가족 소개^^



푸잉(여자)네 홈스테이^^

학교 앞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애완용 코끼리도 있어요^^
집 세 채 보유 중이고 마을 부자로 추정돼요.
아빠 씩 깨우, 엄마 씨 짠, 세 아들 중 막내 아들 뿌끼~
그리고 작은 이모와 조카인 땡땡!



락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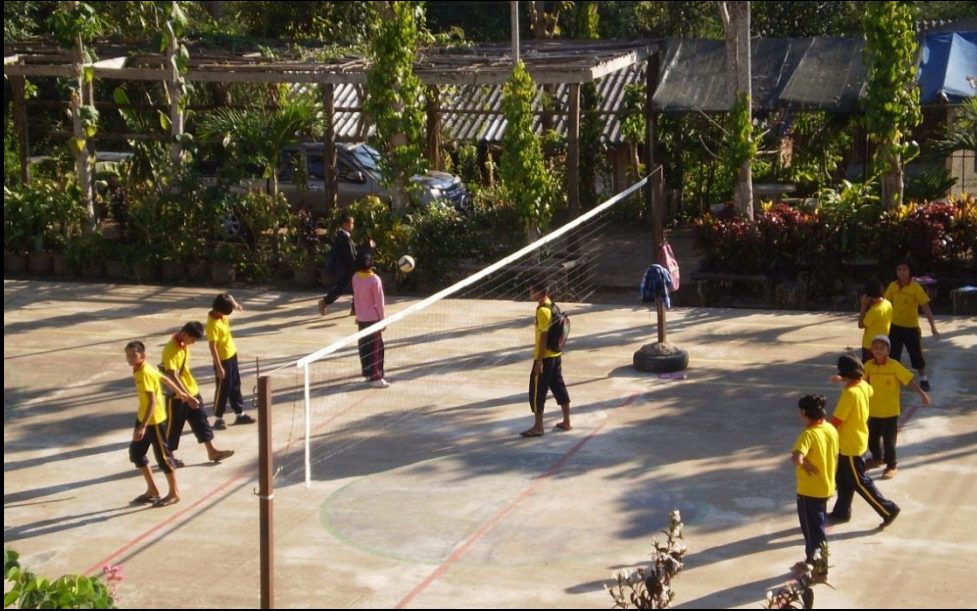
푸차이(남자)네 홈스테이^^

교회 간부 집이에요.^^
다양한 일을 하고 계세요.
아빠는 영어를 잘 하시고, 엄마는 밥을 (생각보다) 많이 드세요.
큰 형 싸잔은 빠이티여우(마실)와 사냥을 잘해요.
막내 룩미는 일을 잘하고 센스가 좋아요.

오리엔테이션 및 적응 기간



3.6.9 게임, 엄 게임(얼음땡), 손유희, 몸으로 말해요



발리볼, 윷놀이, 에어로빅, 체력단련



과학 키트 - 거울의 신비, 바람으로 가는 차, 비즈 목걸이 만들기, 탕탕볼 만들기



한국어 교육

처음에는 각 반에 한 번씩 들어가보고 레크레이션 위주의 수업을 진행했어요. 우리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하는 놀이나 노래도 같이 배웠어요. 또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찾아보는 탐색기간이었어요. (위생 교육 필요성과 도서관의 장서 부족 등)

그리고 이때 학교 시스템(매일 입는 옷 테마가 다르거나 학교에서 일을 하는 것 등)에 대해 알 수 있었어요.

매일 아침 그 날 할 일이 정해져서 수업 준비 등의 이유로 점점 늦게 들어가고 나중에는 그것이 당연시 되는 나쁜 습관이 생겼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서로의 피드백을 통해서 고쳤답니다.^^

중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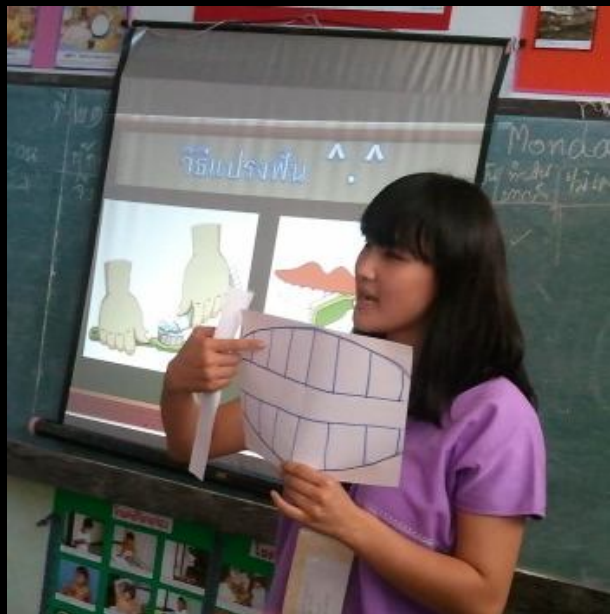


또 잘했어요.^^

처음에 걱정과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칭찬해주셔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발표가 끝난 후에 선생님들과 가족들, 학교 선생님들 모두 모여서 식사 시간을 가졌어요.

실전투입! 뽕~



위생교육 (양치질, 손 씻기)

양치질 : 제일 처음으로 시각 자료를 이용한 수업이었어요. 아이들 칫솔과 치아 건강 상태가 심각했어요. 양치질 하는 법뿐이 아니라 칫솔 보관하는 법까지 알려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아이들도 역시 양치질하는 것을 싫어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손씻기 : 게임으로 진행하니까 더 재미있었어요.

-시간 관계 상 많은 반에서 수업을 하지 못해서 아쉬웠어요.T^T



도서관 프로젝트 (진행 중)

적응 기간 중 학교를 둘러보다가 도서관에 책이 없는 것을 보고 팀원들과 상의를 한 후 모금활동을 통해 책을 선물하기로 했어요^^

애들이 생각보다 책을 많이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책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추가했어요.

늦게 준비한 이유로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웠어요.

1월에 휴일을 이용해서 싼캄펑이나 치앙마이 시내에서 아이들이 직접 쓴 표어와 함께 모금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또 잘할 거예요.*^^*





한국 문화 수업

처음엔 영상 때문에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았지만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참여하는 파트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한복을 입어보게 하는 것도 좋았어요. 하지만 남자 한복이 없어서 아쉬웠답니다.



태권도



태국의 단전 호흡과 함께 해서 좋았어요. 항상 앉아서 하는 수업만 하다가 활동적인 수업을 하니까 몸이 상쾌했어요!^^



모자이크, 레이프라통 그리기, 선생님 얼굴 그리기, 삼원색



클레이



모자이크 수업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았어요. 한지가 유용했어요. 미술 이론 교육을 안받았을 줄 알았는데 기초 미술 이론을 알고 있어서 놀랐어요. 미술 수업은 모든 학년에 적응할 수 있어서 좋아요.



영어 수업

알파벳 노래와 율동, 색칠 공부가 정말 유용했어요.

아이들이 알파벳을 모를 줄 알았는데 다 알고 있어서 놀랐어요.^^;



T- DNA





T – DNA(Thailand DNA)란?

이곳 마을 사람들이 평소에는 인지하지 못하나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일상 생활 속의 감정이나 모습을 이야기 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의 눈이 아닌 그들의 눈으로 그들 자신을 보고 생각해보게 하고 싶었어요.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것도 아니고 정의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한 자리에 모여 각 학년 별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으로 아이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던 자리였어요. 내용을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다양한 내용이 나와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을 이해시키는데 선생님들의 도움이 컸어요.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그럼 이 수업에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선은 어디까지인가, 또 문화란 무엇인가 등의 심도 깊은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모든 활동이 끝난 지금도 이 주제는 모두들 입을 먼저 떼기가... 어렵네요...



테사간(축제)



사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여럿이서 다같이 즐겁게 노는 자리를 마련하길 바랐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냥 보는 입장이었고 선생님이 마지막에 송별회 식으로 이야기해서 우리의 의도와는 약간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들을 위한 축제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담선생님이 많아 도와주셨어요. 그래도 아이들끼리 공연 준비하면서 즐거워했을 것 같아요.

푸차이(남자)들은 록미와 첸, 눈과 함께 밴드 공연을 함께 준비하면서 정말 좋았어요. 눈빛으로 이야기하는 법을 알 수 있었어요^^

선생님들의 춤과 노래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었어요^^

생활은 어땠어요?^^



Sa : . 록미랑 교회 가느라 집에 자주 없어서 가족들이랑 보낸 시간이 많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어요. 마실 다니면서 마을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었지만 몇 몇 마을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Mon : 일단 처음에 이층 올라가자마자 잠자리가 만들어져 있어서 기분 좋았어요. 물이 차가워서 적응이 힘들었어요. 내가 차랑 커피를 좋아하니깐 밥 먹고 난 이후에 물 끓여주셨어요. 우리 가족들은 아들이 두 명밖에 없어서 조금 강하게 키운 것 같아요. 엄마와 아빠는 매일 일하러 나가시고 우리도 학교에 가서 식사 때 빼곤 함께 하는 시간이 적었어요. 나중에 싸잔(록미형)과 형수님이 오셔서 대화가 많아져서 좋았어요. 처음에 가자마자 가족 같은 마음이 들어서 인지 모르겠지만 편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학교에서 자주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집은 또 슈퍼였어요^^.이층을 다 쓸 수 있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맨날 청소도 해주시고 화장실 불도 달아주셨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반찬을 비싸지만, 자주 해주셨어요. 밥 하는 건 못 도와드려도 설거지는 매번 도와드렸어요. 이젠 남동생 뿌끼가 접시를 웃으면서 내밀어요^^. 그런데 잘 때 너무 추웠고, 밤에 화장실 가는 건 가족들이 껌 까봐 조심스러웠어요.

엄마, 아빠가 물건 파는 것도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못 도와드려서 아쉽지만 판매량은 늘려드릴 수 있었어요*^^*

푸잉(여자)네 집에 노트북이 있어서 수업준비 하느라 가족들과 이야기를 많이 못해서 아쉬웠어요. 엄마가 티비를 같이 보자고 했는데 같이 못 봐서 계속 마음에 걸려요ㅠ_ㅠ. 남동생 뿌끼가 발의 상처를 관리를 잘 못해서 상태가 악화되었어요. 같이 치료해주면서 태국의 의료시스템과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뿌끼가 아파서 너무 속상했어요ㅠ_ㅠ 아프지마, 동생아ㅠ_ㅠ

다른 활동은 어땠어요?^^



옷 나눔(교회, 학교)

일본의 피페 친구분이 보내주신 헌 옷을 매랩의 학교와 교회에서 아이들, 주민들에게 나눠드렸어요.

그 옷을 입고 행복하고 따뜻한 날들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뚝뿔라(낚시)





뿌카우(벼베기)

같이 벼베러 가자는 아빠의 말에 처음 벼베기를 해보는 터라 신이 나서 따라 나섰어요.

...하지만... 그 날 회의는 쉬었습니다.





탐깨우(동굴 관광) / 두 창(코끼리 보기)

태국 동굴은 시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방통행이라 다시 되돌아 나와야 했어요. 그리고 외국인이라 2배의 요금을 받아서 마음이 조금 상했지만 그래도 세계에 세 군데밖에 없는 종류의 크리스탈이 있는 동굴이라... 였어요.

푸잉네 애완용 코끼리를 보러 갔어요. 네 살^^* 옥수수나 사탕수수 같은 것을 좋아해요. 귀에 맞으면 아파요. 또 콧물이 흥건해요!





교회

매랩 마을에 머무는 동안 한 번도 안 빠졌어요.(비자 트립 빼고^^)
신앙 때문에 간 것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교회가 작아서 마을마다 하나씩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지역의 제일 큰 교회였어요.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 합창단의 앨범을 만드는 등의 노력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학교 축제를 위해 교회에서 연습했던 것도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아한 까올리 Day
(한국 음식의 날) ^.^

푸잉네 아한 까올리 Day

마지막 일요일날 가족들을 위해 된장찌개와 배추전을 만들었어요. 불을 피우고 조절하는데 정말 고생했어요. 그래도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주어서 행복했습니다*^^*



푸차이네 아한 까올리 Day

짜파게티.
아쉽게도 엄마와 아빠가 계시지 않아서 함께 하지 못해 아쉬웠어요. 그래도 형과 동생은 좋아했어요.





학교
아한 까올리 Day

선생님들께 그 동안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수제비를 만들어 대접해 드렸어요. 그런데 반응이... 수제비는 정말 한국의 맛인가 봐요^^; 그래도 우리는 맛있게 먹었어요.

기타 활동은 어땠어요?^^



레이끄라통

일부러 우리에게 레이끄라통 축제를 보여주시려고 먼 마을까지 데려가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끄라통 만드는 법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춤도 배우고, 소원도 빌었어요^^



비자 트립

치앙라이에 있는 화이트템플과 미얀마 국경 지방인 매싸이에 다녀왔어요^^



'석호를 사랑해요' 캠페인 동영상 제작

라온아띠 사무국의 요청으로 10초짜리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캠페인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해요. 그리고 다른 팀들은 어떻게 했는지도 알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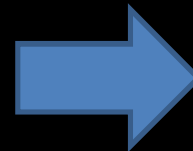


땃폼1(이발)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잘라 주었어요 ^^

땃폼2(이발)

싸(상현)가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린 캠페인^^

양치 컵 및 플라스틱 컵 사용률 **평균 95%** 달성했습니다.

100%를 향해 화이팅~!

느 낀점 ^.^



나도 뭐지 조금 생각했는데 우리 팀이 마음에 든다. 스케줄의 여백을 잘 찾은 것 같다. 생각해보기에서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했고 내가 생각하는 몇 안되는 단점(태국팀은 5개월 스케줄 표가 주어져 처음에 새로운 계획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다.)이 해결되어 기분이 좋았다. 중간평가때 우리는 무조건 주기만 하는 산타클로스가 아니라고 하셨다. 설거지라는 작은 것에서 부터 함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나가야 겠다고 생각했다.

MON(안성원)

이 곳 생활을 하면서 '있는 듯 없는 듯'에대하여 정말 많이 생각했던 것 같다. 둘 중 하나를 꼭 택하자면 '있었다'면이 좋은 것 같다. 이곳에서 한 달동안 있었는데 기억이 된다면 '있었다'로 기억되고 싶다. 이곳은 나에게 첫사랑이니깐. 첫사랑은 누구나 기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기왕에 첫 사랑인거 정말 뜨겁게 '있었다'라고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또 한 있는 듯 없는 듯도 송실장님이 화두를 던져 주셨지만 우리안에서 이야기한게 나의 생각을 많이 바꾸어 주었다. 나는 줄 곧 우리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목소리'(중간평가때 나온이야기) 얘기를 들었는때 나는 우리의 '무의식 중의 목소리'를 생각해봤다. 우리는 적어도 나는 무의식 중에 목소리는 커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내가 만약 미국에 있었다면 목소리가 더 작아졌을 수도.. 한국에 있었을 때보다 주위 사람들 신경을 안쓰고 말 수가 더 많아진 것 같기도 하다.

중간평가 때 받았던 질문들과 라온아띠 생활에 대한 나의 생각이 11월이 끝나가는 시점에 와서야 정리가 되기 시작했다. 우리들이 고민했던 있는 듯 없는 듯이 생활하는 것에 대해 정말 많은 생각을 해보았다. 내가 내린 결론은 복잡하게 생각 하지 않고 우리는 '아시아의 친구'들이니깐 우리가 그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선에서 이 아이들을 내 친구들이랑 똑같이 대하자는 것이었다. 있을 때 있고 없어도 있는 것이 우리가 아는 친구들이 아니었나. 나의 친구가 사라져서 친구를 그리워하더라도 사권 것을 후회하지는 않을 테니깐. 또한 카렌족의 역사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질문에 대한 답도 나름 생각해보았다. 친구랑 친해질 때 자신의 비밀을 먼저 터놓음으로써 친해질 수도 있지만 비밀을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친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료들을 통해 그들의 숨겨진 면을 찾는다고 해도 그것이 지금의 그들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자료들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기록한 자료일테니까. 내가 보고 느꼈던 '룩미'나 '뿌끼'는 그저 사냥을 좋아하기 보단 눈물 많고 정이 많은 아이들이었다. 이 곳에 있는 동안 내 눈에 비친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겠다. 우리는 이 곳 태국에 이미 '있다'. 이 곳에서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존재의 시간에 있음을 즐기고 자연스럽게 없음을 받아들이겠다.



Sa(백상현)



MAI (김진숙)

중간 평가 이후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싶다는 의욕이 앞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수업할 때 있어서 일방적으로 진행했던 것 같다. 함께 생각해 보는 수업이 있긴 했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런 것을 생각해볼길 바랬던 것 같다. 어느 정도는 키워드를 던져줄 필요가 있지만 어떻게 균형을 맞추어나가야 할지 어렵다.

한 달을 돌아보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많이 치중돼있던 것 같다. 우리는 아이들의 친구가 아니라 마을의 친구인데. 분명히 교장선생님께서도 선생님들한테 많은 것을 배우고 함께 일 하라고 하셨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이 아쉽다. 그리고 매립 학교는 학교가 있어서 아이들이 있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있어서 학교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집에서의 생활을 생각해보면, 나는 또 한 명의 딸로서 이곳에 왔는데 식사 때를 제외하고는 이야기하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다. 같이 있는 것보다는 힘드니까 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나는 그들의 가족이었나? 아니면 하숙생이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들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내가 '현재' 생각하는 있는 듯 없는 듯 사는 것은 '적어도 피해는 주지말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샤워할 때 불도 안 키고, 물의 양을 줄이는 노력을 해보았다. 그런데 7바가지 쓰고 불 끄고 씻는 것이 진짜 어렵지 않아서 조금 당황했다. 아무튼 물세랑 전기세는 아껴드린 것 같다.

또한 이곳 마을사람들이 대부분 믿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는데, 국민의 90%가 불교를 믿고 환영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라서 더 지켜나가기 힘들고 더 자리잡기 힘들었을 것 같다. 기독교를 인정받는 것이 어찌면 그들의 존재를 인정받는 한 수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들에게 더 큰 의미를 갖는 것 같다.

팻차린이 우리를 굳이 이곳에 보낸 이유는 태국의 다양한 부분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 이런 아픈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고, 다 함께 생각해 볼 과제를 던져주려고 보낸 것 같다. 또 이곳에서도 organic way를 배우라고 했다. 서로 농사짓고 자급자족하는 방식을 배우라고 이런 곳에 보낸 것 같은데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이들만 보느라 이런 전체적인 마을의 모습을 보는 눈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아직도 우리가 매랩 학교에 선생님이로 왔는지, 학생으로 왔던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과 놀아주는 친구로서 왔는지 모르겠다. 그냥 아이들과 놀아줄 친구였다면 올가닉 팜에서처럼 해도 충분했을 것 같다. 작은 학교다 보니 선생님 수가 적어서 우리가 약간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일을 맡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다. 미술수업만 하더라도 전문적인 선생님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미술 전공자가 있다는 소릴 듣고 수업을 맡긴 것 같은데 경험이 있긴 하지만 아동 미술이 아닌 입시 미술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별로 도움은 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가 많아 단순한 그림 그리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은 평소에 많이 했던 수업이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어서 아이들에게 미안했다. 조금 더 많은 생각과 조사를 해보았다면 더 재미있는 수업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들었다.



Por (장아리)

예전에 일정표 설명을 받을 때 미리 조사해보란 말을 했었는데 다들 깜빡했었다. 미리 알고 있었다면 카렌족에 대해 알고 생각도 공유해보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웠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는 만큼만 알고 있어서 편견을 가지고 매랩으로 간 것 같다. 그 사람들 또한 그냥 태국사람들일 뿐이다. 지금은 매랩 마을 또한 카렌족이 사는 곳이라기 보단 태국의 한 시골 마을에 왔다는 생각을 한다. 우리가 친구 사귄 때 잘살고 못살고 이런 배경을 따지지 않듯 그들의 역사에 대해 모른 채 살아도 충분히 친해질 수 있는 것 같다. 나중에 홈스테이 부모님이나 동네 사람들이 정말 우릴 친근하게 생각해서 그들 스스로 털어놓았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하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가 너무 학교에만 메여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방과 후에도 회의 하고 각자 할 일이나 수업 준비를 하고 그러느라 마을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가족들이랑 같이 시간을 못 보낸 것 같아서 많이 후회하고 있다. 떠나기 전 날까지 가족들 이름을 태국어로 적을 줄도 모르고 집 주소조차 몰랐다는 사실은 조금 충격이었다.

왜 우리가 왜 아직까지 손님대접 받고 있는 것 같은가에 대해 생각해보란 말을 들었다. 중반까지는 아직 덜 친해져서 그런 것 같다. 나중에는 뿌끼가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하라고 그릇을 내밀어주고 장난도 치고 할 수 있었다. 그런 사소한 것에 우리가 진짜 많이 친해졌구나, 가족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과의 교류가 거의 없어서 그런지 끝까지 우릴 어렵게 생각하셨던 것 같다. 선생님들과의 관계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썼었어야 했던 것 같다.

우리 태국팀은 5개월간의 스케줄이 미리 짜여있어서 그 속의 여백을 찾아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하고 싶은 활동을 계획했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우리 위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이제야 하게 되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에 너무 급하게 일을 진행한 것 같다. 그래서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그들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던 것 같다. 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계획해서 실행했더라면 더 잘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었던 문제 중 하나가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다 가라'란 말이었다. 우리의 생각엔 그 말 자체가 모순인 것 같다. 타지인이자 외국인인 우리의 존재가 부각 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최대한 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살다 가라고 하신 말씀 같다.

아이들이나 홈스테이 가족들이 마지막에 작별 인사할 때 언제 다시 올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했었다. 그 질문에 대한 내 답은 '다시 올 것 같지만 언제일지 모르겠다.'였다. 다시 올 수 없을 것 같다고 미리 선을 그어버리기 보단 어느 정도 선까지는 스스로 계속 노력 해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다.



Noon (남하영)

역사란 무엇인가.

만약 누가 매운 것을 싫어한다고 하면 두 가지 경우가 있겠다. 그냥 단순히 매운 것에 예민해서 못 먹는 것과 매운 것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어서 못 먹는 것. 같은 결과(매운 것을 못 먹는다)라도 그 내면의 이유는 매우 다르다. 그런 이유를 알고 결과를 아는 것과 그냥 결과만 아는 것은 이해의 정도뿐 아니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 하지만 나는 내가 카렌족의 마을에서 한 달 여간을 머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사를 하지 않았었다. 이건 분명 관심부족이다.

카렌족의 마을인 메렙에서도 분명 홈스테이 엄마가 책상 밑에 버마 돈을 끼우고 있다는 것을 봤었다. 그 돈을 보고 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할 때 엄마가 대답을 꺼리던 것처럼 느껴졌던 건 내 느낌뿐이었을까. 난 아직 마을의 구성원이 완전하게 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역사는 강자에 의해서만 기록되기 때문에 역사는 완전한 사실이 되지 못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내가 정확하게 카렌족의 역사는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알고 있었더라면 그 빈 여백들과 뒤틀린 부분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단순히 카렌족은 핍박 받았던 민족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그 말하지 못했던 공백을 읽어낼 수 없었다.

우리 팀원이 말했던 것처럼 지내는 동안 카렌족과 한국인의 구별이 불명확해졌었다. 그 메 마을에 있는 동안 한명 한명을 만날 때는 그 한명을 만났었지 우리가 카렌족을 만난 것이 아니었다. 마을에 있는 동안 학교 외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영역이 있었다. 홈스테이 족. 학교에서 할 일을 받은 것처럼 홈스테이에서도 가족을 받은 것이었는데 그 균형을 맞추지 못했다. 학교에 집중하면 집에서 지치고 집에 집중하면 학교 수업준비를 할 수 없었다. 점점 하면서 연습해 가는 거겠지.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다. 내가 한국에서도 태국에서 맺은 인연들과 지속적인 연락을 할 수 있다면 서로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난 한국에 돌아가면 인연 지키기에 소원해질 것 같았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소원해져서 그 인연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기보다는 처음부터 아예 연락처를 남기지 않기로 다짐했었다.

나는 그들에게 아시아의 친구가 되기로 결정하고 왔었지만 그들은 나를 부른 것은 아니다. 그들이 나를 친구로 선택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선택해서 온 것 만큼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산타클로스같이 원하지도 않는데 선물이라고 던져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애들은 가만히 있는데 위생교육, 도서관 프로젝트, 그리고 축제를 던져주는 것이 과연 잘 하는 행동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의 기준으로 선택하지 말고 선생님들한테 이 학교에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태국인의 기준으로 선택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팻차린이 왜 이 마을에 우리를 보냈을까. 우리에게 카렌족의 마을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마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 마을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시간을 줄 수 있게 보낸 것 같기도 하다. 오랫동안 한 마을에서 살다보면 자신이 가진 것들을 평가절하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경향에서 벗어나 다시 외부인의 시선으로 자신의 마을을 보고 자신의 마을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게 보냈을까.

더 나아가 이 마을의 학교에서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어른들이 매우 무표정한데 비해 아이들이 안기는 것도 좋아하고 눈 마주치는 것도 좋아하고 .. 전반적으로 정에 굽주린 인상을 받았다. 우리가 이 마을에서 같이 정을 나누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느낌을 나누게,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이 마을에 우리를 보낸 것 같다.



또 잘했다. 컵쿤k.

Thank You~~~~~